

삼성전자DS 파운드리 사업부 설비기술 분야 취업스토리

- ▶ **합격기업** 삼성전자DS
- ▶ **직무** 파운드리 사업부 설비기술
- ▶ **스펙** 학점: 3.76
오팍: IH
- ▶ **현장실습** (주)동양정공 [1개월]
- ▶ **공모전** Innovation Fair(장려상), 한국화학공학회 창의설계 경진대회 (교외, 대상), 발명/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전 (우수상), 생태모방 아이디어 공모전(교외, 동상)
- ▶ **봉사활동** 교육봉사, 헌혈, 남구청 지원 총 116시간
- ▶ **기타** 학술동아리, 해외교환학생(캐나다), 생산관리직무교육, 공정데이터분석사 교육
- ▶ **자격증** 화공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한국사1급, 식스시그마 (블랙벨트),
공정데이터분석사 2급





대학생활 스토리

‘교수님! 저를 믿고 뽑아주시면 저희 전남대학교와 화학공학부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시 면접에서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된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대학생활 초부터 설정한 목표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이었습니다. 학부 학술동아리의 규율상 예비역 2학년부터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 1학년은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으며 보내며 고등학교 때 하던 남구청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던 만큼 정말 빠르게 흘러간 1년,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타 이미지가 정말 좋게 의무경찰 시험에 통과하여 광주에서 의경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복학하여 바로 학술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공모전, 스터디, 봉사활동 등 학술동아리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는 선배들에게 공모전에 대한 팁들을 배웠으며 방학에는 교육봉사활동 그리고 당시 학과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식스시그마, 공정데이터 분석사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습니다. ‘미래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다고보다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으면 방학 때 해외 박람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 열을 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선배들에게 배운 공모전 관련 팁들을 바탕으로 한국화학공학회 주관의 공모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선배가 반응공학 시간에 사용했던 아이디어가 괜찮았다며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3개의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리메이크하여 학회 공모전에 나가기 전 교내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갔으나 결과가 장려상이었습니다. 교내 공모전에서 장려상이면 교외 공모전에서는 결과가 어떨지... 당연한 결과가 보였기에 급하게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학회 공모전에 나갔고 대상이라는 믿기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저는 이때 나를 학교와 학부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되겠다고 한 교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훗날 교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신 걸 보면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아이디어로 교내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해 겨울방학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동아리 동기들이 함께 지원하여 라오스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2년 전 선배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라오스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당시 선배들을 도와주셨던 한국인 출신 교장 선생님께 연락이 닿아 저희 역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숙소 예약부터 어느 정도의 관광까지 덕분에 일주일의 라오스 봉사활동이 여행이었던지 봉사활동이었던지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3학년은 전공 위주의 스터디 활동을 하며 지냈으며 학부 프로그램으로 모은 마일리지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패키지여행을 다녀온 것 마냥 스케줄이 짜인 가운데 진행되는 활동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 어린 시절부터 꼭 한번 다녀오고 싶었던 해외 교환학생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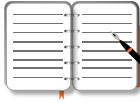
다. 2014년 수능이 끝나고부터 매달 10만 원씩 5년간 모은 적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과에서 친하게 지내고 제가 아끼는 후배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함께한 덕분에 더욱 즐거웠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캐나다 교환학생이 끝나고 약 3주간은 미국 서부 지역을 돌며 여행을 하였는데 이때의 경험이 힘든 취업시장에서도 저를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귀국하여 4학년 2학기 남은 전공 선택과목과 재수강 전 공과목을 수강하였고 겨울 방학 때는 생산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인재육성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교육이었는데 이후 현장실습 연계가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회사는 보통 희망하면 바꿀 수 있지만 랜덤하게 정해졌는데 제가 현장실습을 진행한 ㈜동양정공은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의 1차 밴더 회사라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졸업을 위해 설계과목을 수강해야 했기 때문에 5학년 1학기 설계 2과목과 재수강과목을 수강하며 본격적인 취업시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채용 전형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났지만, 첫 취업이었던 기에 적응 기간 같은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진행하였습니다. 20곳이 넘는 기업에 지원하였지만, 제약회사인 종근당과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두 회사에서만 면접을 보게 되었고 종근당은 최종면접에서 현대오일뱅크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설계가 매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병행을 한 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이전에 경험을 쌓아두고 싶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여름방학에는 한국바스프의 학교 추천전형으로 면접을 보게 되어 최종면접까지 갔으나 탈락... 최종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두 번째이다 보니 점점 확신이 없어지는 게 정말 큰 약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졸업을 유보하고 인·적성을 공부하며 서류에 전념하였고 하반기 역시 20곳이 넘게 지원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진 곳은 한국바스프와 삼성전자, 남해화학 3회사뿐이었습니다. 한국바스프는 최종 면접까지 갔던 만큼 다시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졌고 삼성전자는 인·적성 기간 약 한 달간 하루에 모의고사를 최소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돌리며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적성을 보았기에 까다로운 점이 좀 있었지만, 모두가 견뎌야 하는 부분인 만큼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은 공기업 NCS 전형으로 인·적성이 나왔는데 NCS는 연습한 적이 없었기에 탈락을 예상하였습니다. 한국바스프는 최종면접을 화상을 통해 오직 영어로만 진행하였는데 또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삼성전자의 면접 기회... 최종 면접을 3번이나 떨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에 부쳤습니다. 사실 이때는 여자 친구를 비롯한 가족들의 응원 그 무엇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블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의 삼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힘을 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고의 시간 끝에 임원면접에서 마지막 말을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서두 생각) 교수님과 약속을 지킨 것처럼 면접관님들께 드린 이 약속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서 반드시 지켜내 보이겠습니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과는 합격... 그렇게 지금 취업 성공 후기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었던 교수님과 약속은 대학생활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 되었고 이제는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삼성전자 DS)

Essay1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마음이 가는 기업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혁신을 바탕으로 한 비전'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파운드리 업계의 다크 호스로써 추가 생산라인 구축, 7nm 공정 기술 등 첨예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현재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1위 기업인 T사를 넘어서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도전, 창조, 협력의 정신으로 기술 혁신을 이끈다'는 기업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았으며 이에 매료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수주받은 물량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Fab 내의 각종 설비와 Utility를 이해하고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Process Parameter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며 설비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사업부의 기술 발전에 따른 차세대 신설비들을 담당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는 등 배움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안정적인 생산능력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비 기술 엔지니어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업무에 열중하는 신입사원이 되어 세계 1위를 목표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Essay2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속 가상인물도 가능)

책임감의 결과물

집안의 장남으로서 고시준비로 타지에 계셨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다짐은 강한 책임감을 지닌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까지 혼자서 동생과 조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어머니는 밝은 미소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며 자연스럽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 학술 동아리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이러한 강한 책임감은 어떤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맡던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학술 동아리의 회장이자 팀장으로 활동하며 총 5개의 공모전을 나갔으며 각각 2개의 교외 공모전과 2개의 교내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중 한국화학공학회 주관의 공모전에서는 팀장의 역할을 맡은 만큼 PPT 발표를 도맡아 하였고 이외에도 팀의 사기를 증진하며 함께 노력한 결과 대상이라는 벅찬 결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꼼꼼한 서류준비를 바탕으로 학교 장학생 팀으로 선발되어 라오스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공학인증 과목 중 총 6번의 전공 팀 프로젝트에서 공정 문제를 해결하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교환학생 - 해외 경험을 통한 또 한 번의 성장

또한, 책임감은 '마음먹은 것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도전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전 의지를 바탕으로 수능 이후부터 꾸준히 적금을 통해 모아온 자금을 가지고 캐나다의 위니펙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은 어릴 적부터 저의 버킷리스트였고 이를 위해 오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어 회화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숙 생활을 해야 하는 캐나다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주도 위니펙 대학교에 지원하여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막상 현지에 와서 영어를 사용하고자 하니 잘 들리지도 듣지를 못하다 보니 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친구들이 운영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회화 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글로벌한 인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무기로 한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삼성전자의 설비 기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역량을 길러왔으며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갖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신입사원이 되고자 합니다.

Essay3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택트 시대 그리고 삼성전자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언택트'라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들은 인터넷 강의를 기업의 회의는 화상 회의를 채택하는 등 변화된 일상 속에서 디지털 매체는 기존의 생활방식 보다 더욱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디지털 매체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컴퓨터 기반 기술들의 발전 방향성이 중요하게 여겨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걸맞은 올바른 성장이 중요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점차 도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MP3의 기술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워크맨의 소형화만을 연구하던 일본의 'S'사나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세대교체 무렵의 여러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변화 양상에 걸맞지 않은 성장 방향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변화에 순응하며 도전하던 기업들은 현재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선두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인지하고 혁신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수익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기술들의 핵심에 반도체 산업이 있으며 앞서 말한 기술들의 발전은 반도체 분야의 발전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공정 및 소재 관련 강의 수강, 다수의 공모전, 설계 팀 프로젝트를 통해 직무 역량을 꾸준히 길러왔으며 언택트 시대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역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설비 기술 엔지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Essay4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경험(심화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위한 준비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비 기술 직무에 지원하였습니다. 설비 기술 엔지니어는 최첨단 반도체 설비를 운영하고, 설비의 성능을 향상 및 개조시키는 등 Facility 지원을 통해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제품 양산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에서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와 설비 오작동과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KOCW(대학 및 기관 공개 강의 플랫폼)를 통해 반도체 제조 공학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 중 화학공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산화 과정, 초고순도 암모니아수를 이용한 세척, 이온 반응 등 다양한 전공 내용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반도체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을 탐구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선배나 고분자 전공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며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전공 과정 중 무기재료 과목을 수강하며 소재과학에 대한 전공지식 역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졸업 설계 과정의 전공 팀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MATLAB과 ASPEN을 사용하여 부텐 피드 내부의 Iso-butylene과 메탄올의 합성을 통해 MTBE를 생산해 내는 공정의 개선을 진행하여 A 학점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엑셀을 통해 데이터의 통계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반응 조건을 찾고 결과를 프로그램에 코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이윤이 높은 공정을 도출해 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과 소재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을 길러왔으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입사지원경험 (삼성전자 DS 설비 기술)

가. 인·적성 검사 후기

저는 정말 머리가 좋아서 무엇을 잘하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인·적성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소금물, 거리/시간/속도, 확률 등의 문제들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역시 반복 학습**에 있었습니다. 정해진 유형이 있었기에 아무리 난이도를 높여도 큰 틀 안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충분히 커버**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지사트를 시행하면서 시험 과목이 수리와 추리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하루에도 모의고사를 4, 5개씩 돌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간은 정말 이를 갈고 해야 하지만 말이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들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취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먹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어차피 하게 된 취업 자신을 믿고 부딪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성을 처음 시작하면 당연히 틀린 개수도 많고 실력도 잘 안한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죠) 저 역시 시험이 다가올 무렵에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문제 풀이 개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지사트는 문제풀이 개수보다 중요한 게 바로 정확도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우시다면 푼 문제를 다 맞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시면 충분합니다.

나. 면접후기

삼성은 원데이 면접으로 하루에 인성검사, 직무면접과 인성면접, 약식지사트 이렇게 4가지 과정을 수행합니다. 시간대는 각자 다르지만 저는 동탄역에 아침 6시 20분까지 집합이었기에 전날 올라가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면접자들이 모이면 버스를 이용해 면접장으로 이동하는데 면접 진행자 수가 많은 만큼 조를 나누어 수행하게 됩니다. 각 조마다 인성검사, 직무면접, 인성면접, 약식지사트 수행순서가 다르게 됩니다. 저는 A조로 인성검사 → 직무 → 임원 → 약식지사트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직무·임원 면접은 3(면접관):1(지원자)로 진행됩니다. 삼성 면접은 면접자 수가 정말 많은 만큼 정말 많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는 잘 봤는데 임원을 못 봐서 떨어졌다. 아니다. 나는 둘 다 못 봤는데 이상하게 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면접관님들도 사람인만

큼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사람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신의 소신 있는 대답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1) 인성검사

삼성의 인성검사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A와 B로 인성검사가 나누어져 있고 A에서는 3문제가 한 세트인데 그 질문들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 중간 가장 아닌 것.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3가지 질문이 다 좋은 문항이거나 나쁜 문항이냐 하는 식으로 대충하다가 신뢰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비로 2만원? 정도 했던 인성검사를 해보았는데 유형이 완전히 동일한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 삼성 인성검사라고 검색하면 구매하여 수행해 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이를 한 번 체험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삼성에서 면접전형으로 떨어지면 기록이 남는데 차 후 지원에서 인성검사 부분에서 탈락 점을 받게 되면 서류에서 무조건 탈락을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2) 직무면접

직무면접은 말 그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저는 직무 면접에서도 특징적인 직무관련 된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이력서에 관련된 부분과 태도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질문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을 보면 직무를 정말 깊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직인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직무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부장급이신 분들인데 가고자 하는 공정이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시면 자세히 알지 못해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피셜은 아닙니다.)

질문

- 왜 파운드리 사업부에 지원하였나.
- 가고자 하는 공정이 무엇인가.
- 원하는 공정에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주)동양정공 현장실습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나.
- 해외 교환학생 느낀 점
- 교대근무 자신 있는가
- 생산과 품질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
- 선배가 말하는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갈등해결 경험
- 양보와 배려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마지막 할 말 (물어보시지 않아서 먼저 마지막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3) 임원면접

임원면접은 분위기가 정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직무면접 잘 본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후 바로 1분 자기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께서 제 대답을 많이 자르셨는데 장황하게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거의 시작 되지 얼마 되지 않아 자르시는걸 보면 뒤는 '듣지 않아도 알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면접 중간에 학점이 낮은 것 같은데 참여한 활동이 많아서 그런거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패기 롭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3.73이면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어떻게 대처 하는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원 면접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 페이스를 유지하며 자신감과 함께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직무면접 잘 봤는가.
- 분 자기소개
- 마치 프로젝트 발표하는 것처럼 잘한다, 면접 트레이닝을 받은 거냐.
- 왜 파운드리 사업부에 지원하였는가.
- 가고자 하는 공정이 어디인가.
- 팀프로젝트에서 무임승차 하는 친구들 어떻게 했는가.
- 들어와서 그러한 직원들 인사고과 낮게줄것인가 높게줄것인가.
- 자격증 많은데 왜 딱거냐.
- 왜 설비기술 썼냐.
- 직무 지원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마지막 할 말.

(4) 약식지사트

약식 지사트는 수리 20->10 추리 30->15 문제를 시간도 30->15분씩 해서 진행합니다. 문제 풀이 용지에 이름도 기입하지 않았고 일설에 따르면 컨닝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창의 면접 점수를 이를 통해서 대체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오히려 피셜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전형의 일부인 만큼 열심히 임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TIP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마인드 세팅입니다. 3번의 최종탈락을 경험하며 너무 힘들었기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포기하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특히 면접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지

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가 확연히 갈린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면접에서는 발성도 중요합니다. 흔히 면접용 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 본인의 목소리가 감미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 톤을 연습하시고 면접에서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해야 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긴장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은 목 끝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횡설수설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려면 말을 어느 정도 끊어서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특히나 사람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마인드 세팅을 하다 보면 면접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취업시장이지만 가능성의 힘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정말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남대학교 화이팅!!

